

## 小兒藥證直訣에 記載된 方劑의 特性分析

조현진, 박선동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Formulas in 『Xiǎo' Er Yào Zhèng Zhí Jué(小兒藥証直訣)』

Hyun-Jin Cho, Sun-Dong Park  
Dept. of Prescription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formulas in 『Xiǎo' Er Yào Zhèng Zhí Jué』.

**Methods :** For that objectives, We analyzes formulas in 『Xiǎo' Er Yào Zhèng Zhí Jué』. In the text, 132 formulas were described. To comprehend the formulas, we classified them as several bases.

**Results :** After those analyses, we bring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30 formulas are described that treated convulsive diseases (jīng fēng 驚風). Next, gū (瘧) parasite infection, diarrhea/dysentery, dermatosis and etc were in the order.

2. Classified by the formulation, Yuánjì(圓劑) was the best(70 kinds of formulas, 53%). Sǎnjì(散劑) was a form of 41 formulas(31%). Tāngjì(湯劑) and gāojì(膏劑) were a form of 5 formulas each. 10 formulas were assumed the form of wàiyòngjì(外用劑).

3. We researched in-depth analysis of yuánjì. As a results, dosage, additive(輔料) and the time to take of yuánjì were decomposed. Also, the formulas that treated convulsive diseases were analyzed

- 
- 교신저자 : 박선동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54-770-2371 E-mail : sundong@dongguk.ac.kr
  - 접수 : 2011/ 05/ 20 수정 : 2011/ 06/ 02 채택 : 2011/ 06/ 13

by the herbs classification.

**Conclusions :** Though the formulas that treated convulsive diseases were hard to application at local clinic, overall nosology of pediatrics was reflected comparatively. 『Xiǎo' Er Yào Zhèng Zhí Jué』 was expected to play a role for reconsideration of formulas' formulation.

**Key word :** Formulas, Xiǎo' Er Yào Zhèng Zhí Jué, Yuánjì, Sǎnjì

## 1. 緒 論

小兒는 發育 과정 중에 있어 成人에 비해 身體的으로 연약하며 精神的으로도 미숙하다. 또한 新生兒에서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成人과는 다른 생리적, 병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小兒의 치료에는 成人과는 다른 치료방법과 處方방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小兒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및 預後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小兒科學은 중요한 의학 분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東洋醫學에서 小兒科의 역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원전 12세기의 甲骨文字에 小兒疾病에 관하여 기록된 바로 미루어 볼 때 그 基源이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馬王堆 출토 의서인 『五十二病方』은 小兒科를 기술한 최초의 醫書이며, 東漢末年에는 張仲景의 제자인 衛訊이 최초의 小兒專門醫書인 『小兒顛顛經』을 著作하였다. 唐代에는 太醫署에 小兒科를 설치하여 小兒科를 독립된 학과로 分科하였으며, 전문적인 小兒科 醫生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의학발전의 발전과정 중에서 축적된 성과를 宋代(960~1279年)에 이르러 정부차원

에서 정리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등 다수의 서적이 발간되어 의학이 부흥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小兒科 저작이 전례 없이 풍부하게 발간되었다. 上述한 時代的 與件하에서 錢乙은 『內經』, 『傷寒論』, 『神農本草經』 등의 내용을 계승하고 小兒의 生理, 病理的 특징을 파악한 결과, 『小兒藥證直訣』(이하 『直訣』로 幹稱)을 著作하여 小兒科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sup>2,3)</sup>.

錢乙(1032~1117年)은 宋代의 저명한 小兒科 의사로, 저작으로는 『傷寒論指微』, 『嬰孺方』, 『錢氏小兒方』, 『小兒藥證直訣』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直結』만이 閻季忠의 수집, 편집을 거쳐 현존하고 있다<sup>1)</sup>. 『直結』은 1119년에 만들어졌으며, 上, 中, 下 3卷으로 편제되어 있다. 上卷은 脈證治法과 小兒脈法, 五臟病, 急慢驚風, 痧疹, 傷風, 吐瀉, 咳嗽, 疳, 積, 蟲癖, 腫, 雜證의 八十一編이 記載되어 있으며 小兒의 生理·病理的 특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中卷은 醫案이 기록되어 있으며, 下卷은 處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下卷에는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는 六味地黃圓, 瀉白散, 導赤散 등의 名方이 다수 記載되어 있다<sup>3,4)</sup>.

현재 국내에서도 錢乙과 『直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데, 김 등<sup>4)</sup>이 『直結』을 텍스트로

小兒瘡疹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황<sup>5)</sup>은 醫案分析을 통하여 錢乙의 醫學사상에 관하여 分析한 바 있고, 오<sup>3)</sup>와 윤<sup>6)</sup>은 錢乙의 생애와 醫學사상에 대한 총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김<sup>8)</sup>은 『直結』과 『脾胃論』에 記載된 용어를 비교하여 고찰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전반적인 小兒科學의 歷史에 대한 考察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錢乙이나 『直結』을 언급한 경우<sup>1,9)</sup> 등이 있었다. 하지만 『直結』에 대한 方劑學的 考察은 個別 方劑에 대한 연구는 有名處方 위주로 진행된 바 있으나<sup>10)</sup> 方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分析한 보고는 거의 없으며, 윤 등<sup>11)</sup>이 錢乙의 醫案과 方劑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단순히 主要方劑의 나열에 그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直結』은 小兒科學의 歷史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著作이면서도 方劑學的 分析은 제대로 진행된 바 없었다. 이에 著者は 『直結』의 下卷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들의 疾病別 分析, 劑型別 分類와 分析, 연령대별 服用量의 記載에 대한 分析, 處方의 구성 藥材의 分析 등의 資料分析을 실시하여 方劑學的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直結』의 方劑分析을 위하여 中國醫藥科技出版社가 出版한 書籍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解釋은 醫聖堂이 出版한 書籍을 참고하였다<sup>12-13)</sup>. 『直結』은

세 권으로 나누어진 편제로 되어 있는데, 緒論에서 上述한 바와 같이 下卷에 處方이 記載되어 있다. 하지만 處方의 개수는 板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번 연구에서 기본으로 한 互校本의 경우 117개 處方이 수록되어 있으나, 聚珍本の 경우 本板本과 비교해서 26개 處方이 적고, 20개 處方은 다른 處方이 수록되어 있다. 추가된 20개 處方의 경우 5개는 閻氏小兒方論에 記載되어 있으나, 15개 處方은 어디서 출전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sup>13)</sup>.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板本에 따른 차이가 날지라도 處方을 모두 포함하여 分析하는 것이 錢乙 處方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5개 處方을 포함하여 處方分析을 실시하였다.

### 1. 『直結』에 記載된 질병別 處方에 관한 조사

먼저 『直結』에 記載된 132개 處方들을 疾病別로 分類하였다(Table 1). 疾病名의 경우 原文에 記載된 處方의 主治症을 근거로 著者が 임의로 分類하였다. 이는 『東醫寶鑑』등의 서적 편제와는 달리 『直結』의 경우 處方이 별도의 疾病別 分類로 記載되어 있지 않았고, 순서도 主治症別로 分類된 것이 아닌 상태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主治症의 경우 處方에 따라 2개 이상의 主治症이 기록된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이 경우 疾病分類 마다 處方을 각각 명기하였다. 同名異方의 경우 處方을 구분하기 위해 處方名 뒤에 (1), (2)를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Table 1. 『直結』의 질병別 處方分析

疾病名	處方 <sup>①</sup>	頻 度
瘵癩性 疾患(驚風)	大靑膏, 粉紅圓(溫驚圓), 瀉靑圓, 利驚圓, 栝藹湯, 牛黃膏, 宣風散, 麝香圓, 小惺惺圓, 銀砂圓, 三聖圓, 銀液圓, 金箔圓, 辰砂圓, 剪刀股圓, 麝蟾圓, 軟金丹, 蟬花散, 鈎藤飲子, 抱龍圓, 豆卷散, 龍腦散, 治虛風方, 回生散, 虛風又方, 梓朴散, 羌活膏, 鬱李仁圓, 溫白圓, 靑金丹(1), 鎮心丸, 涼驚丸	30

① ( )안은 異名.

疔	涼驚圓, 益黃散(補脾散), 木香圓, 胡黃連圓, 蘭香散, 白粉散, 牛黃圓, 麝香圓, 三聖圓, 牛黃膏, 如聖圓, 榆仁圓, 龍骨散, 橘連圓, 龍粉圓, 膽礬圓, 秦朮散, 獨活飲子, 三黃散, 人參散, 檳榔散, 黃芪散, 地骨皮散, 蘭香散, 傅齒立效散, 蠅丸	26
蟲病	安蟲散, 抱龍圓, 胡黃連麝香圓, 大胡黃連圓, 榆仁圓, 大蘆薈圓, 安蟲圓, 苦楝圓, 蕪荑散, 膽礬圓, 史君子圓	10
泄瀉,痢疾	白附子香連圓, 豆蔻香連圓, 小香連圓, 二聖圓, 沒石子圓, 溫白圓, 豆蔻散, 溫中圓	8
皮膚疾患(瘡疹)	百祥圓(南陽圓), 牛李膏(必勝膏), 五福化毒丹, 金華散, 紫草散, 生犀磨汁	6
諸熱	小惺惺圓, 牛黃膏, 三黃圓, 大黃圓, 生犀散, 大黃丸	6
癩,狂	五色圓, 小惺惺圓, 蛇黃圓, 鎮心圓, 五福化毒丹	5
流行病(溫疫 傷寒)	抱龍圓, 人參生犀散, 麻黃湯, 青金丹(2), 敗毒散	5
脾胃虛弱	益黃散(補脾散), 白朮散, 異功散, 藿香散	4
吐瀉	玉露散(甘露散), 鉤藤飲子, 異功散, 二氣散	4
嘔吐	鐵粉圓, 銀液圓, 香銀圓, 木瓜丸	4
心熱	導赤散, 瀉心湯, 鎮心圓	3
壯熱	安神圓, 白餅子(玉餅子), 地骨皮散	3
夜啼	當歸湯, 花火膏, 蟬花散	3
積聚	紫霜圓, 眞珠圓, 消堅圓	3
咳嗽	蟬花散, 抱龍圓, 百部圓	3
大小便不通	鬱李仁圓, 犀角圓, 眞珠圓	3
眼科疾患	羊肝散, 蟬蛻散, 生犀散	3
驚疳	涼驚圓, 大惺惺圓	2
喘息	瀉白散(瀉肺散), 阿膠散(補肺散)	2
顛門不闔	塗顛法, 治顛開不合鼻塞不通方	2
過多發汗	止汗散, 香瓜圓	2
結胸	桃枝圓, 福銀圓	2
乳癰	消堅圓, 燒青圓	2
盜汗	黃芪散, 虎杖散	2
腎虛諸證	地黃圓	1
脾熱	瀉黃散(瀉脾散)	1
沐浴	浴體法	1
肺熱	甘桔湯	1
脹滿	塌氣圓	1
大便酸臭	清積圓	1
丹毒	白玉散	1
中暑	抱龍圓	1
變蒸	當歸散	1
口瘡	龍骨散	1
小便不通	捻頭散	1
乳母의 疾病 (乳汁不通)	烏藥散	1
乳食衛肺	葶藶圓	1
未記載	調中圓	1

2. 處方의 劑型에 관한 分析

服用量 등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 중 劑型別로 處方名과 頻度를 조사하였다.

『直結』은 각 處方마다 治療證, 構成本草, 製法,

Table 2. 處方의 劑型별 分類

劑 型	處 方	頻 度	百分率
圓 劑	涼驚圓, 粉紅圓, 瀉青圓, 地黃圓, 安神圓, 白餅子, 利驚圓, 五色圓, 調中圓, 塌氣圓, 木香圓, 胡黃連圓, 清積圓, 紫霜圓, 香瓜圓, 牛黃圓, 百祥圓, 麝香圓, 大惺惺圓, 小惺惺圓, 銀砂圓, 蛇黃圓, 三聖圓, 鐵粉圓, 銀液圓, 鎮心圓, 金箔圓, 辰砂圓, 剪刀股圓, 麝蟾圓, 軟金丹, 桃枝圓, 抱龍圓, 福銀圓, 五福化毒丹, 鬱李仁圓, 犀角圓, 如聖圓, 白附子香連圓, 豆蔻香連圓, 小香連圓, 二聖圓, 沒石子圓, 溫白圓, 溫中圓, 胡黃連麝香圓, 大胡黃連圓, 榆仁圓, 大蘆薈圓, 橘連圓, 龍粉圓, 香銀圓, 安蟲圓, 膽礬圓, 眞珠圓, 消堅圓, 百部圓, 三黃圓, 葶藶圓, 大黃圓, 史君子圓, 青金丹(1), 燒青圓, 木瓜丸, 青金丹(2), 大黃丸, 鎮心丸, 涼驚丸, 蚶皮丸, 羌活膏 <sup>②</sup>	70	53
散 劑	瀉白散, 阿膠散, 導赤散, 益黃散, 瀉黃散, 白朮散, 生犀散, 安蟲散, 止汗散, 玉露散, 宣風散, 蟬花散, 鉤藤飲子, 豆卷散, 龍腦散, 虛風方, 虛風又方(梓朴散), 異功散, 藿香散, 當歸散, 豆蔻散, 金華散, 蕪荑散, 紫草散, 秦艽散, 地骨皮散, 敗毒散, 麥生犀散, 黃芪散, 虎杖散, 捻頭散, 羊肝散, 蟬蛻散, 烏藥散, 二氣散, 生犀散, 獨活飲子, 三黃散, 人參散, 檳榔散, 黃芪散	41	31
湯 劑	甘桔湯, 當歸湯, 瀉心湯, 栝蘘湯, 麻黃湯	5	3.8
膏 劑	大青膏, 花火膏, 牛黃膏, 牛李膏, 牛黃膏	5	3.8
外 用	塗額法, 浴體法, 蘭香散, 白粉散, 白玉散, 治額開不合鼻塞不通方, 地骨皮散, 蘭香散, 傳齒立效散, 龍骨散	10	7.6
기 타	生犀磨汁	1	0.8
합 계		132	100

3. 圓劑의 服用量, 輔料, 服用時間 分析

에 대하여 分析하였으며(Table 3-1), 크기별로 分析하였고(Table 3-2), 輔料別 分析도 수행하였다 (Table 3-3). 輔料別 分析시에는 疾患群과 處方數를 명기하였다.

處方의 劑型을 分析한 결과(Table 2), 圓劑가 전체 132개 處方 중 70개를 차지하여 최다 劑型으로 分析되었다. 『直結』의 圓劑 處方의 特性에 관하여 이해하기 위해 먼저 服用量, 輔料, 服用時間

Table 3-1. 圓劑의 服用量, 輔料, 服用時間 分析

疾病名	處 方	크 기	服用量(1回)	輔 料	服用時間
痙攣性 疾患 (驚風)	粉紅圓	芡仁大 <sup>③</sup>	0.5~1	牛膽汁	.
	瀉青圓	芡仁大	0.5~1	煉蜜	.
	利驚圓	小豆大	20	麵糊	.
	麝香圓	桐子大	5~20	豬膽	.

② 명칭은 膏로 되어 있지만, 실제 使用方法是 圓劑의 形態이다.

③ 원문에는 “鷄頭大”로 되어 있다. 이는 芡實의 異名이다.

	小惺惺圓	桐子大	1~2	麵糊	食後
	銀砂圓	綠豆大	1~3	梨汁	食後
	三聖圓	黍米大	1~2	麵糊	常服
	銀液圓	皂子大	1	石腦油	.
	金箔圓	麻子大	3~20	薑汁, 麵糊	無時
	辰砂圓	綠豆大	1~7	熟蜜	食後
	剪刀股圓	桐子大	1	麵糊	食後
	麝蟾圓	桐子大	1	水	無時
	軟金丹	皂子大	0.5~1	熟蜜	食後
	抱龍圓	皂子大	0.3~5	煮甘草水	沐浴後
	羌活膏	大豆大	1~2	熟蜜	食前
	鬱李仁圓	黍米大	.	.	食前
	溫白圓	綠豆大	5~30	寒食麵	空腹
	青金丹(1)	黃米大	2	豬膽汁	.
	鎮心丸	芡仁大	0.5~2	熟蜜	食後
	涼驚丸	綠豆大	1~2	熬梨	食後
疳	涼驚圓	粟粒大	3~5	麵糊	.
	木香圓	綠豆大	3~20	蜜	食前
	胡黃連圓	麻子大	5~3	飯	食後
	牛黃圓	粟米大	3~5	麵糊	食後
	麝香圓	桐子大	5~20	豬膽	.
	三聖圓	黍米大	1~2	麵糊	常服
	如聖圓	麻子大	5~15	.	無時
	榆仁圓	綠豆大	5~20	豬膽汁	無時
	橘連圓	綠豆大	10~30	粟米粥	無時
	龍粉圓	麻子大	10~20	煉蜜	無時
	膽礬圓	綠豆大	20~30	好醋1升	無時
	蚬皮丸	粟米大	30	豬膽汁, 麵糊	食後, 臨臥, 日進 三服
	抱龍圓	皂子大	0.3~5	煮甘草水	沐浴後
	胡黃連麝香圓	綠豆大	5~20	麵糊	無時
蟲病	大胡黃連圓	麻子大	10~15	豬膽汁, 米	食後, 臨臥
	榆仁圓	綠豆大	5~20	豬膽汁	無時
	大蘆薈圓	綠豆大	20~30/頻服	粟米飲	無時
	安蟲圓	黍米大	5~30	麵糊	發時
	膽礬圓	綠豆大	20~30	好醋1升	無時
	史君子圓	芡仁大	0.5~1	煉蜜	.
	泄瀉, 痢疾	白附子香連圓	綠豆大	10~30/1日 4~5回 服用	粟米飯
豆蔻香連圓		米粒大	10~30/1日4~5回 服用	粟米飯	食前
小香連圓		綠豆大	10~50/頻服	飯	食前
二聖圓		綠豆大	20~30/頻服	豬膽汁	無時
沒石子圓		麻子大	小兒發育狀態를 살펴加減	飯	食前
溫白圓		綠豆大	5~30	寒食麵	空腹
溫中圓		綠豆大	10~20	薑汁, 麵	無時

皮膚疾患 (瘡疹)	百祥圓	粟米大	10~20	水	無時
	五福化毒丹	芡仁大	0.5~1	煉蜜	食後
諸熱	小惺惺圓	桐子大	1~2	麵糊	食後
	三黃圓	綠豆大 或麻子大	5~20	麵糊	食後
	大黃圓	綠豆大	5~10	煉蜜	.
	大黃丸	麻子大	10	稀糊	.
	五色圓	麻子大	3~4	煉蜜	.
癩, 狂	小惺惺圓	桐子大	1~2	麵糊	食後
	蛇黃圓	桐子大	1~2	飯	.
	鎮心圓	桐子大	1	煉蜜	.
	五福化毒丹	芡仁大	0.5~1	煉蜜	食後
	流行病 (溫疫 傷寒)	抱龍圓	皂子大	0.3~5	煮甘草水
青金丹(2)		麻子大	3	磨香墨	.
嘔吐	鐵粉圓	粟米大	10~30	薑汁, 麵糊	無時
	銀液圓	皂子大	1	石腦油	無時
	香銀圓	麻子大	1~7	生薑汁	無時
	木瓜丸	小黃米大	1~2	麵糊	無時
心熱	鎮心圓	芡仁大	0.5~2	熟蜜	食後
壯熱	安神圓	芡仁大	0.5	煉蜜	無時
	白餅子	綠豆大	3~20	糯米	空腹
積聚	紫霜圓	粟米大	3~5	.	.
	眞珠圓	麻子大	1~8, 乳癰者減圓數	粟米飯	隔日臨臥一服
	消堅圓	麻子大	1	麵糊	食後
咳嗽	抱龍圓	皂子大	0.3~5	煮甘草水	沐浴後
	百部圓	芡實大	.	煉蜜	.
大小便不通	鬱李仁圓	黍米大	.	.	食前
	犀角圓	麻子大	10~20	煉蜜	.
	眞珠圓	麻子大	1~8	粟米飯	乳癰者減圓數, 隔日臨臥一服
驚疳	涼驚圓	粟粒大	3~5	麵糊	.
	大惺惺圓	綠豆大	1~2	.	食後
過多 發汗	香瓜圓	綠豆大	2~10	麵糊	食後
結胸	桃枝圓	粟米大	5~30	麵糊	臨臥
	福銀圓	綠豆大	1~5	陳米粥	食後
乳癰	消堅圓	麻子大	1	麵糊	食後
	燒青圓	黃米大	5~7	水	.
腎虛 諸證	地黃圓	梧子大	3	煉蜜	空腹
脹滿	塌氣圓	粟米大	5~20	麵糊	無時
大便 酸臭	清積圓	黍米大	2~5	麵糊	無時
中暑	抱龍圓	皂子大	0.3~5	煮甘草水	沐浴後
乳食衛肺	葶藶圓	麻子大	5~7	蒸陳棗肉	.
未記載	調中圓	綠豆大	0.5~30	.	食前

Table 3-2. 圓劑의 크기별 分類

크기	處方	頻度	百分率
綠豆大	白餅子, 調中圓, 木香圓, 香瓜圓, 大惺惺圓, 銀砂圓, 辰砂圓, 小香連圓, 二聖圓, 溫白圓, 溫中圓, 胡黃連麝香圓, 榆仁圓, 大蘆薈圓, 橘連圓, 膽礬圓, 三黃圓, 大黃圓, 涼驚丸	19	27
麻子大	五色圓, 胡黃連圓, 金箔圓, 犀角圓, 如聖圓, 沒石子圓, 大胡黃連圓, 龍粉圓, 香銀圓, 眞珠圓, 消堅圓, 葶蔞圓, 青金丹, 大黃丸	14	20
粟粒大	涼驚圓, 塌氣圓, 紫霜圓, 牛黃圓, 百祥圓, 鐵粉圓, 桃枝圓, 蚶皮丸	8	11.4
芡仁大	粉紅圓, 瀉青圓, 安神圓, 五福化毒丹, 百部圓, 史君子圓, 鎮心丸	7	10
黍米大	清積圓, 三聖圓, 鬱李仁圓, 白附子香連圓, 安蟲圓	5	7.1
桐子大/梧子大	小惺惺圓, 蛇黃圓, 鎮心圓, 剪刀股圓, 麝蟾圓/地黃圓	6	8.6
皂子大	牛李膏, 銀液圓, 軟金丹, 抱龍圓, 編銀圓	5	7.1
米粒大	豆蔻香連圓, 燒青圓, 青金丹	3	4.3
小黃米大	木瓜丸	1	1.5
大豆大	羌活膏	1	1.5
小豆大	利驚圓	1	1.5
合計		70	100

Table 3을 토대로 각 輔料별 處方수를 조사하였다. 處方 중 輔料를 2가지 이상 별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해당 輔料에 각각 표기를

하였으며, 疾患群과 해당 疾患群에 몇 개의 處方이 있었는지를 Table로 정리하였다.

Table 3-3. 圓劑의 輔料別 分類

輔料	處方數	疾患群(處方數)
麵糊	26	痙攣性疾患(5), 疳證(4), 蟲病(2), 泄瀉/痢疾 諸熱(3), 癰狂(1), 嘔吐(2), 積聚(1), 驚疳(1), 過多發汗(1), 結胸(1), 乳癖(1), 脹滿(1), 大便酸臭(1)
蜜	18	痙攣性疾患(5), 疳證(2), 蟲病(1), 皮膚疾患(1), 諸熱(1), 癰狂(3), 心熱(1), 壯熱(1), 咳嗽(1), 大小便不通(1), 腎虛諸證(1)
膽汁(牛,猪)	9	痙攣性疾患(3), 疳證(3), 蟲病(2), 泄瀉/痢疾(1)
飯/粟米飯	8	疳證(1), 泄瀉/痢疾(4), 癰/狂(1), 積聚(1), 大小便不通(1)
煮甘草水	5	痙攣性疾患(1), 蟲病(1), 流行病(1), 咳嗽(1), 中暑(1)
薑汁	4	痙攣性疾患(1), 泄瀉/痢疾(1), 嘔吐(2),
水	3	痙攣性疾患(1), 皮膚疾患(1), 乳癖(1)
梨汁	2	痙攣性疾患(2)
石腦油	2	痙攣性疾患(1), 嘔吐(1)
糯米	1	壯熱(1)
陳米粥	1	結胸(1)
蒸陳棗肉	1	乳食衛肺(1)
好醋	1	疳證(1)
磨香墨	1	流行病(1)



4. 『直結』處方の 年齡 및 成長度에 따른 服用量

『直結』은 小兒의 特性을 감안하여 處方用量을 調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小兒의 年齡 및 成長度이 주된 고려대상이다. 이를 조사한 결과, 총 17

종의 處方の 用量 차이가 구체적으로 記載되어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處方の 分量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고 小兒의 발육상태를 보아 투여한다(量大小加減)고 記載된 處方은 제외하였다.

Table 4. 『直結』處方の 年齡 및 成長度에 따른 服用量

處方	劑型 <sup>④</sup>	基準年齡/體重	年齡/體重別 服用量
三聖圓	黍米大	1世	100日 이상 1圓 / 1世 2圓
史君子圓	芡仁大	1世	100日 이상~1世 이하 半圓 / 1世 1圓
紫霜圓	粟米大	1世	幼兒(100~200일) 3圓 / 1世 5圓
桃枝圓	粟米大	1世,5世	1世 미만 2~3圓 / 1世 5~7圓 / 5~7世 20~30圓
福銀圓	綠豆大	3,5世	1世 1圓 / 2~3世 2~3圓 / 5世 이상 5~6圓
大胡黃連圓	麻子大	3~5世	5~10圓 / 3~5世 이상 15~20圓
白餅子	綠豆大	3世	3世 이하 3~5圓 / 이상 20圓
清積圓	黍米大	3世	2~3圓 / 3~5圓
宣風散	散劑	3世	2~3世 5分 / 3世 이상 1錢
如聖圓	麻子大	3世	2~3世 5~7圓 / 3世 이상 10~15圓
蟬蛻散	散劑	3世	100일 5分 / 3世 이상 1~2錢
蟬花散	散劑	5世	1世 1字 / 4~5世 半錢
抱龍圓	皂子大	5世	100日 0.25~0.3圓 / 5世 1~2圓 / 成人 3~5圓
眞珠圓	麻子大	8~15世	1世 1圓 / 8~15世 8圓
安蟲散	散劑	大者	1字 / 半錢
香瓜圓	綠豆大	大者	2~3圓 / 大者 5~10圓
粉紅圓	芡仁大	小者	小者 半圓 / 1圓

5. 驚風處方の 藥物分析

疾病別 處方分析(Table 1)의 결과를 토대로 가장 處方數가 많았던 痙攣性 疾患(驚風)의 處方の 構成藥物을 藥物群별로 分類하였다. 本草의 分類은 韓醫科大學 共通教材인 『本草學』<sup>14)</sup>의 구분을 따랐다. 다만 外用藥으로 구분된 鑛物藥들은 其他 鑛物藥으로 命名하였고, 驚風處方에 多用되지 않

는 本草群은 其他로 分類하였다. 藥材 사용량은 本草名 옆에 숫자(錢)로 표기했다. 三聖圓의 경우 主治症은 같지만 處方은 세 가지(小青圓,小紅圓,小黃圓)로 구성되어 있다. 세 處方の 구성 本草가 각각 달라 處方分析 시에는 세 處方 모두 표기하였다.

④ 별도 표기 없이 크기roman 기록된 부분은 圓劑임.

Table 5. 驚風處方的 構成藥物分析

(단위 : 錢)

處方	解表	清熱	瀉下	瘀血	化痰止咳平喘	安神	平肝	開竅	補益	其他鑛物藥	其他
大青膏		青黛1			白附子1.5, 天竺黃	硃砂	天麻1, 蝎尾1				烏梢蛇肉1
粉紅圓					天南星1.5, 天竺黃10	朱砂1.5		龍腦0.125			胭脂1
瀉青圓	羌活, 防風等分	梔子等分	大黃等分	川芎等分				龍腦等分	當歸等分		
利驚圓		青黛1	牽牛5		天竺黃2					輕粉1	
栝藿湯		栝藿根2	甘遂1								
牛黃膏		寒水石5				朱砂0.5		龍腦1	甘草末3	雄黃3	砒硝3
宣風散			牽牛40						甘草5		檳榔2個, 陳皮5
麝香圓	蟬殼1	草龍膽5, 胡黃連5, 青黛1, 熊膽1, 牛黃1	蘆薈1					龍腦1, 麝香1		輕粉1	瓜蒂21個, 木香1
小惺惺圓		牛黃1				辰砂2	蛇黃5	龍腦2, 麝香2			母豬糞2
銀砂圓			郁李仁3, 白牽牛3			辰砂2, 鐵粉3	蝎尾3			水銀(三皂子大), 礬砂3, 粉霜3	好腊茶3
小青圓		青黛1	牽牛1							膩粉(鉛粉)1	
小紅圓			巴豆1		天南星10	朱砂0.5					
小黃圓		黃柏0.25	巴豆霜0.25		半夏0.1						
銀液圓					天南星2, 白附子1					水銀5	
金箔圓	防風5	生犀0.5, 牛黃0.5			天南星5, 白附子5, 半夏5	辰砂0.1		麝香0.5, 龍腦0.5		雄黃0.1	金箔20片
辰砂圓	蟬殼0.1, 麻黃0.1	牛黃0.5, 生犀0.1			天南星0.1	辰砂0.1	天麻0.5, 白僵蠶0.1, 蠶0.1, 乾蝎0.1	麝香0.5, 龍腦0.5		水銀0.1	
剪刀股圓	蟬殼0.1, 牛黃0.25			五靈脂0.1	天竺黃0.1	朱砂0.1	白僵蠶0.1, 蝎0.1, 蛇黃5	龍腦0.25, 麝香0.5			乾蟾0.1
麝蟾圓					青礞石2	鐵粉3, 朱砂2	蛇黃2	龍腦0.25, 麝香1		雄黃2	大乾蟾2
軟金丹		青黛1	黑牽牛0.3		天竺黃20, 半夏0.3					輕粉20	
蟬花散	蟬花0.1			延胡索0.5			白僵蠶0.1		炙甘草0.1		

鉤藤飮子	蟬殼5, 防風5, 麻黃5			川芎0.1			鉤藤0.3, 天麻5, 白僵蠶5, 蝎尾5	麝香0.1	人蔘5, 炙甘草0.1		
抱龍圓					天竺黃10, 天南星40	辰砂5		麝香5			雄黃1
豆卷散		大豆黃 卷10, 板藍根10							炙甘草10		貫衆10
龍腦散		青蛤粉 等分, 寒水石 等分	大黃 等分		半夏 等分	金星石 等分, 銀星石 等分		龍腦0.25	甘草 等分		不灰木 等分, 禹餘糧 等分
虛風方					大天南星 1個						
虛風又方					半夏1						厚朴10
羌活膏	羌活5, 防風3, 麻黃3	牛黃1		川芎5	白附子5	珍珠1, 辰砂0.1	天麻10 白僵蠶0.1, 乾蝎0.1	麝香1, 龍腦 0.125	人蔘5	輕粉1, 雄黃0.1	白花蛇0.1, 附子3, 丁香2, 木香2, 赤茯苓5, 豆蔻肉2, 藿香葉2
鬱李仁圓			鬱李仁10, 川大黃10								滑石5
溫白圓					白附子0.1, 天南星0.1		天麻5, 白僵蠶0.1, 乾蝎0.1				
青金丹 (1)		青黛5, 胡黃連5, 蘆薈0.1			白附子2	朱砂0.25	熊膽0.1	蟾酥0.1, 麝香0.5, 龍腦0.25		雄黃5, 水銀1, 輕粉0.1	鉛霜0.25
鎮心丸		寒水石10				朱砂10		龍腦1, 麝香1	人蔘10 炙甘草10, 乾山藥20		恬硝10 白茯苓20
涼驚丸			鬱李仁1 白牽牛1			鐵粉1				硼砂1, 粉霜1	好臘茶3

### III. 考 察

漢醫學의 역사에서 錢乙은 小兒科의 發展過程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醫家라고 할 수 있다. 北宋 이전에는 小兒疾患에 관한 著作이나 經驗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錢乙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小兒科學의 계통성을 갖추어 발전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錢乙은 診斷

分野에 있어서 望診을 중요시 하였으며, 五臟辨證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또한 病理面에서는 驚風學說을 확립하였으며, 斑疹 등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던 疾患들에 관하여 考察하였다. 또한 方劑學的 側面에서도 당시의 香燥한 藥物을 사용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柔潤한 성질의 藥物을 多用하였으며, 이는 후대에 寒冷派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sup>115)</sup>

『直結』下卷에 記載된 處方을 분석한 결과(Table 1), 處方이 가장 많이 記載되어 있는 疾患은 驚風

과 疳病으로 이러한 疾患이 당시 小兒科 臨床에서 가장 문제가 되며 多發하는 疾患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寄生蟲 疾患을 치료하는 處方도 10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虛證에 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實證, 熱證을 치료하는 處方이 많다. 이는 『直結』 上卷에서 錢乙이 서술한 바와 같이 小兒는 純陽之體로서 益火할 필요가 없더라는 사상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直結』의 處方을 劑型別로 分類한 결과를 Table 2로 요약하였다. 漢代 『傷寒論』을 비롯한 『直結』의 前代 및 後世의 醫書에서 湯劑가 주된 劑型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현재 韓醫 臨床에서 處方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湯劑가 多用되고 있다. 하지만 『直結』에서는 丸散劑의 비중이 상당히 높는데, 전체 132개의 處方 중에서 圓劑가 70종으로 53%를 차지하였고, 散劑가 41종으로 31%를 차지하였다. 圓劑와 散劑를 합하면 84%의 비중을 차지해 절대 다수가 丸散劑의 劑型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直結』에記載되어 있는 疾患群 중에 圓劑의 형태의 處方을 포함하지 않는 疾患에 대해 살펴보면 대략 3가지 種類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虛證疾患인 경우(脾胃虛弱, 吐瀉, 盜汗, 夜啼, 喘息)가 있으며, 둘째로 熱性疾患인 경우(脾熱, 肺熱, 眼科疾患, 丹毒, 變蒸, 小便不通, 乳汁不通), 그리고 外用藥인 경우(顛門不闔, 口瘡, 沐浴)로 分類된다. 먼저 虛證疾患의 경우를 살펴보면 『直結』 전체 處方 중에서 순수 虛證에 해당하는 疾病名은 脾胃虛弱(益黃散, 白朮散, 異功散, 藿香散), 腎虛諸證(地黃圓), 盜汗(黃芪散, 虎杖散) 정도인데 處方劑型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圓劑보다는 散劑가 多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論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補劑의 경우 급박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熱性疾患인 경우는 小兒에서 多發하는 疾患

이라 多數의 處方이 사용되었는데, 散劑뿐 아니라 圓劑도 多用되어서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外用藥의 경우는 丸劑의 사용이 불합리하여 당연히 散劑나 湯劑의 형식을 취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散劑의 경우 실제 복용법에서는 湯劑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복용하는 處方도 있는데, 예를 들면 瀉白散의 경우, 地骨皮, 桑白皮, 甘草를 散으로 하여 粳米 一撮을 넣고, 물 二小盞을 넣고 달여서 七分으로 만들어 복용한다고記載되어 있다(地骨皮, 桑白皮 炒各一錢, 甘草炙一錢, 上剉散, 入粳米一撮, 水二小盞, 煎七分, 食前服). 한편 湯劑인 甘桔湯의 경우, 桔梗, 甘草를 粗末하여 매번 2錢씩 복용하는데, 물 一盞을 七分이 되도록 달여 복용한다고 하였다(桔梗二兩, 甘草一兩爲粗末, 每服二錢, 水一盞, 煎至七分, 去滓, 食後溫服).<sup>13)</sup> 이 두 處方을 비교해 보면 處方名은 散과 湯으로 서로 다르지만 처방의 실제 조제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散劑의 방식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外用劑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세부에 있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湯劑의 경우도 散劑와 같은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은 小兒의 특성상 處方의 용량이 成人 대비 조절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였으리라 추정된다.

北宋대의 저울추를 근거로 추정해볼 때, 1斤은 625~640g으로 현재의 용량과 비슷하며, 北京에서 출토된 金代의 구리 저울추의 경우 銘文을 근거로 환산해 보면 1兩을 40g으로 하여 역시 현재 사용되는 度量衡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宋代에 사용된 度量衡도 現代의 것과 大同小異하였으리라 추측된다.<sup>16)</sup>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蟬蛻散의 경우 玳瑁入眼을 치료하는 處方인데, 蟬蛻가 1兩, 豬懸蹄甲 2兩으로 구성된 處方이다. 服用量에 있어서는 백일이 지난 小兒는 五分, 3세 이상은 1~2錢씩 복

용하는데 낮에 3~4번, 밤에 1~2번 복용한다고 記載되어 있다. 하루에 4번 복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백일이 지난 小兒는 하루 2錢을 복용하는 것이며, 3세 이상은 4~8錢을 복용하는 것이다. 『東醫寶鑑』은 集例에서 1貼에 1兩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는데<sup>17)</sup>, 이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處方의 용량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蟬蛻散을 『直結』의 복용지침을 따랐을 경우 3세 이상이 대략 成人量의 1/3정도를, 100일 이상~3세 미만은 1/10을 복용하게 된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침인 식약청 고시의 경우 成人 服用량을 기준으로 “7세이상 15세미만 2/3, 4세이상 7세미만 1/2, 2세이상 4세미만 1/3, 2세미만 1/4이하”로 한다고 정해진 양과 비슷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處方의 用量에 있어서 『直結』의 服用량은 現在 臨床에서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用量이라고 생각된다.

Table 3-1은 圓劑의 服用量, 輔料와 服用時間에 대하여 分析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驚風, 諸熱證, 癇/狂 등의 경우 食後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疳, 蟲病, 嘔吐 등의 경우 시간 관계없이 복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錢乙이 질병의 특성에 따라 服用時間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輔料의 경우 麵糊가 26개 處方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蜜이 18개 處方에서 사용되었고, 특이하게 膽汁이 9개 處方에서 사용되었다(Table 3-3). 麵糊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여 多用된 것으로 생각되며, 蜜은 丸劑를 만드는 기본 輔料로 지금도 多用되고 있으나 膽汁의 경우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輔料이다. 膽汁은 痙攣性疾患, 疳證에서 각 3개 處方, 蟲病에서 2개 處方, 泄瀉/痢疾에서 1개 處方의 輔料로 사용되었는데, 疾病群의 傾向성에 있어서 熱性疾患이 많아 膽汁의 苦寒한 性질을 이용하고자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Table 3-2는 『直結』의 圓劑를 크기별로 分類한 도표이다. 총 70개의 圓劑 중 綠豆大가 19례(27%)

로 가장 많았고 麻子大가 14례(20%)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현재 常用되는 丸劑의 크기인 梧子大의 경우 地黃圓(六味地黃元)에만 사용되었으며, 彈子大의 경우 적용된 예가 없었다.

『直結』處方에는 小兒의 상황에 다른 處方 用量의 조절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處方의 분량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고 “小兒의 發育常態를 보아 투여한다(量大小加減)”고 記載된 處方은 제외하고 服用量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記載된 處方을 조사한 결과 17종의 處方이 있었다(Table 4). 이를 살펴보면, 處方의 服用량을 변경하는 기준의 연령대를 1세, 3세, 5세를 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傾向성으로 보아, 1세를 기준으로 할 때, 1세 미만은 절반의 용량을 사용하였고, 3세 이상은 1세 기준용량의 2배 정도를 사용함이 대략의 規律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大者와 小者라고 하여 體重이나 成長정도에 따른 服用量 차이도 3개 處方에서 언급하였으며, 服用量의 차이는 小者의 경우 절반 服用량을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 통용되는 한약제제 급여의 원칙<sup>19)</sup>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直結』에 記載된 處方을 현재 臨床에서 사용함에 있어 處方 用量의 차이를 현재 기준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만 특기할 점은, 安蟲散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1字, 大者의 경우 半錢을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度量衡과는 相異하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시<sup>18)</sup>로는 1字는 9.375g으로 1錢보다 큰 단위지만, 『直結』의 문맥으로 살펴보면 字는 錢보다 작은 단위라고 생각된다. 鄉藥集成方<sup>20)</sup>에는 4字가 1錢이라고 記載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大者는 일반 체중아보다 2배의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되므로, 鄉藥集成方의 度量衡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Table 5에서는 『直結』의 疾患群 중에서 가장 많은 處方이 記載되어 있는 驚風의 處方에 대한 本草分析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清熱藥, 化痰藥,

安神藥, 平肝藥, 開竅藥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清熱劑에서는 靑黛가 多用되었으며, 平肝藥에서는 동물성 약재인 蝟尾, 白僵蠶이 多用되었다. 補益劑의 경우 사용된 本草의 種類와 頻도가 적어 甘草와 人蔘정도만이 사용되었고, 溫裏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鑛物藥이 多用되었다는 점인데, 安神藥으로 硃砂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輕粉, 雄黃, 水銀 등 有毒한 鑛物藥이 흔하게 사용되어 臨床應用에 주의가 필요한 處方이 다수 記載되어 있었다.

이상으로 『直結』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을 고찰한 결과, 驚風處方은 臨床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疾患分類가 小兒科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小兒科의 定立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圓劑의 활발한 응용은 현대 臨床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손<sup>21)</sup>은 조사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韓藥의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맛과 편의성에 관해서는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韓醫學界에서도 劑型變化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直結』에는 湯劑에서 벗어난 劑型이 주가 되므로, 劑型에 관한 논의 시 하나의 典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며, 服用量이나 服用法, 輔料의 사용에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을 것이라 사료된다.

#### IV. 結 論

문헌조사를 통해 『小兒藥證直訣 下卷』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疾病別로 處方을 분석한 결과, 痙攣性疾患(驚風) 處方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疳, 蟲病, 泄瀉/痢疾, 皮膚疾患(瘡疹), 諸熱, 癩/狂, 流行病, 脾胃虛弱 등의 疾患郡 순으로 處方數가 많았다.

2. 劑型別로 分類한 결과, 圓劑가 70개로 53%, 散劑가 41개로 31%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으며, 湯劑, 膏劑는 각 5개, 外用劑 10개, 기타 1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劑型 중 최다빈도였던 圓劑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여 服用量, 輔料, 服用時間에 대해 분석하고, 질병별 分類 중 최다빈도였던 驚風에 사용된 處方에 관하여 本草分析을 수행한 결과, 錢乙이 질병의 특성에 따라 服用時間을 고려하여 처방을 투여하였으며 圓劑의 크기로는 綠豆大와 麻子大가 가장 多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服用量의 측면에서는 基準年齡을 1세, 3세, 5세로 하여 服用量을 변경하였으며, 輔料는 麵糊, 蜜, 膽汁의 순으로 使用頻도가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장 處方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驚風疾患에 사용된 方劑를 분석한 결과, 清熱藥, 化痰藥, 安神藥, 平肝藥, 開竅藥이 다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有毒한 鑛物藥이 多用되어 臨床에서 응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 驚風處方은 臨床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疾患 分類가 小兒科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小兒科의 定立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劑型에 관하여 논의 시 하나의 典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著作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1년도 동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參考文獻

1. 박현국, 김기욱, 이영석. 兩宋時期的 小兒科學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21(2):2, 6, 7.
2.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中國科學技術史(醫學編). 서울:일중사. 2004:537-8.
3. 오준환. 錢乙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2001:1-2, 5-6.
4. 김민진, 김은하. 小兒藥證直訣을 통한 小兒 瘡疹에 관한 연구.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2009;7(1):24.
5. 황영준. 小兒藥證直訣의 醫案에 나타난 錢乙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大學院. 2008.
6. 윤헌중. 錢乙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大學院. 2000.
7. 윤헌중. 錢乙의 醫論, 醫案 및 方劑에 관한 研究.
8. 김민진. 小兒藥證直訣과 脾胃論에 기재된 용어 비교에 관한 연구 : 명사와 명사형 용어를 중심으로. 大邱韓醫大大學院. 2010.
9. 박선주. 小兒科學의 變遷(兩宋~明代)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2007.
10. 정현우, 백영찬, 금정상. 六味地黃湯加味方이 局所腦血流量 및 血壓에 미치는 實驗的 效果. 대한동의생리학회. 2000;14(2).
11. 윤헌중, 금용진. 錢乙의 醫論·醫案 및 方劑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9;12(2).
12.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106-90.
13. 錢乙. 小兒藥證直訣. 서울:圖書出版 醫聖堂. 2002 :107-212.
1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著. 本草學. 서울:永林社. 2000.
15. 이훈. 中國 小兒科學의 史的 考察 : 古代부터 清代까지. 慶熙大學校大學院. 1999:29-30.
16. 中國國家計量總局. 中國度量衡圖集. 서울:法仁文化社. 1993:352-6.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法仁文化社. 1999:10-1.
1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3장 11조. 2003.
19. 김덕곤, 김윤희, 김장현, 박은정, 백정환, 이승연, 이진용, 장규태. 東醫 小兒科學. 서울:圖書出版 鼎談. 2002:181.
20. 俞孝通. (國譯) 鄉藥集成方 下卷. 서울:永林社. 1989:1699-700.
21. 손상목. 한약 劑型 개선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20~30대 소비자들의 劑型별 선호도. 中央大學校 醫藥食品大學院. 2007:55-7.